



대행 스님

나를 추억겹 끌고 다닌 믿음직한 나부터 믿으세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지요

☞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면서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꼭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되나요?

☞ 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어떤 병고나 생긴다 하더라도, 얼른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온 업보가 녹아지지 않는다면, 내 이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해 주지 않는다면 작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대 그 과거의 의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갖가지로 나오는 걸 나온 거다가 다시 놓으면, 한테 모아서 합쳐서 놓으면 다시 놓는 거마다 한테 합쳐집니다. 왜 콩깍지도 익은 콩깍지 있죠? 익은 콩깍지를 탁 치면 콩알이 싹 빠지고 껍데기만 싹 남듯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 이만하면 가도 괜찮겠다' 할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 그렇게 많이 고생을 안 하고 얼른 그 무명을 벗을 텐데, 영혼은 자유스럽게 돌아가고 그럴 텐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콩깍지가 익지 못해서 아주 파란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각기 아우성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되면 이놈의 거를 강제로 벗겨 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속살이 붙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온통 풍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망령이 들고 이러질 않나, 또는 아파서 그냥 마냥 드러누워서 주위의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나, 이것은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서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하루나 이틀, 한 달 석 달 이쯤 앓는 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아주 병양을 잘합니다.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런 자식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별어먹고 실라, 자식들 기르라, 이러한 외중에 자식들은 속속이라, 부모는 누워서 앓고 있으라 이런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무지 이 속에서 붙어 나서 이런 잘하다가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드러눕는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저놈의 자식이 저러느냐, 내가 저거를 먹지 않고 기르고 쓰지 않고 가르치고 이랬는데 저놈의 새끼가 저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 그 인과의 법은 점점 점점 원한이 자꾸 자꾸 서리고 가슴에 못이 박혀서 또다시, 끼리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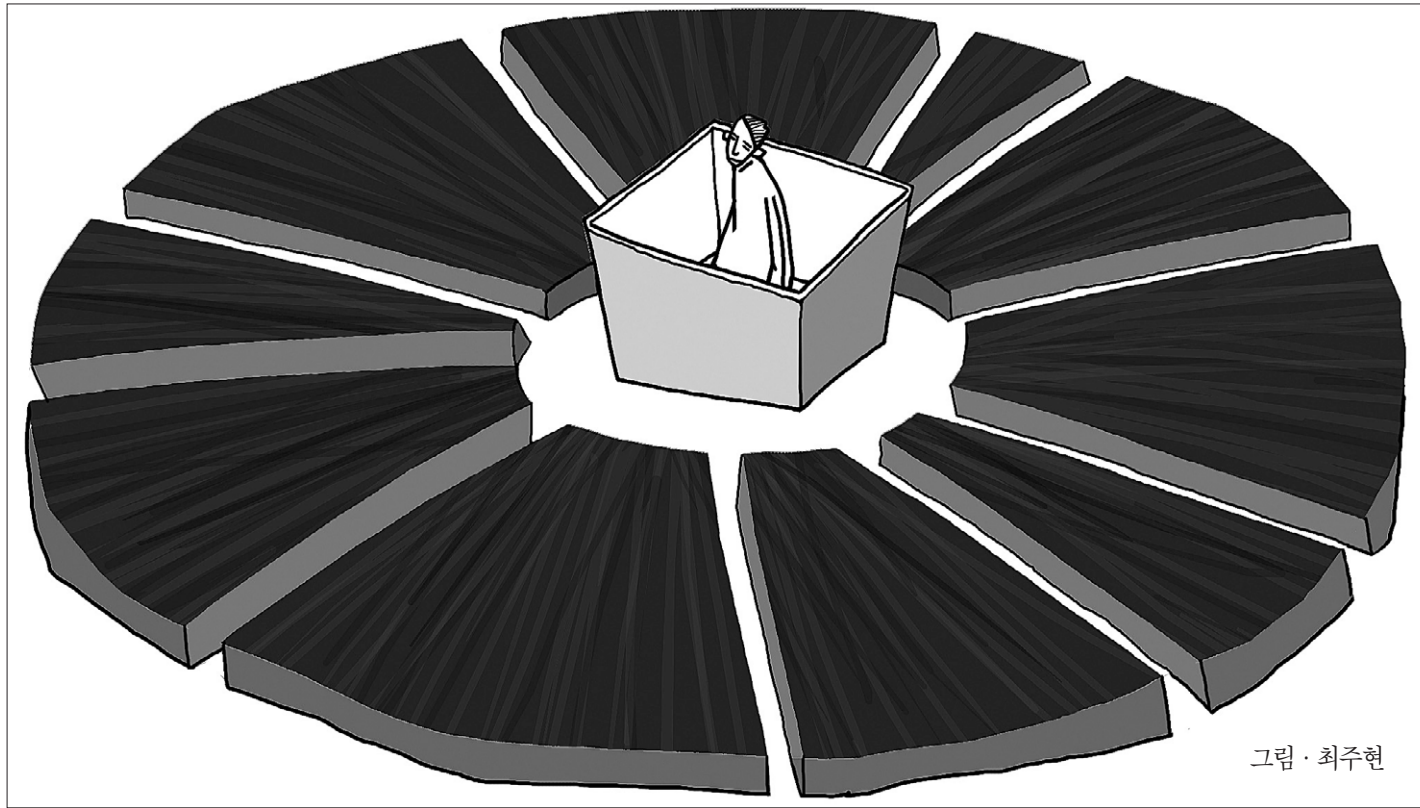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리 또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승전을 하려는데 그렇게 원한이 있고 그래 가지고야 승전을 할 수가 있나? 길을 갈 수가 있어야지!

또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 뭐가 만날 뒤주에서 쌀만 푸러 가면 작작 작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쌀 푸는 거 많이 풀까 봐, 옛날엔 먹을 게 주저로워서 말입니다. 그 많이 퍼서 헤프게 먹어서 집안 망할까 봐, 그게 머리에 사무쳐서 그냥 구멍이 가 돼서 그 뒤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말입니다. 작게 쓰라는 거요, 작게 쓰라는 거, 그렇듯이 모든 것에 착을 두면 그 착에 의해서, 죽어도 별써 그 의식이 그걸 꼭 끼고 돌아가니까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배낭을 짊어지고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살이로 살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하루살이로 살기도 능글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바둥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력이나 능력을 기르라는 얘깁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가 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 두렵고 또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아무리 해 달라고 빌

어도 그것은 아니 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똥 누는데 대신 뉘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신 자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신 먹여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신 아파 주는 사람, 대신 죽여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부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부처님 동생이 있었는데 "나도 부처님같이 깨치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 상 들어오너라." 겸상을 차려서 상을 들어오게 해 놓고 동생의 밥을 그냥 먹여 버렸어요. 그리고 "너, 배부르냐?" 하고 물었어요. "아, 오라 버니가 잡숫고 제 배가 어떻게 해서 부릅니까?" 하고 대답을 했죠. "그거와 똑같다. 네가 하지 않는 일을 어찌 내가 너의 일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다른 거는 대신 해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은 대신 해 줄 수가 없느니라." 이러셨답니다.

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 건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 성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거를 다 쳐 놓고라도 이 도리는 꼭 배워야 할 도리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자기 정신이 먹혀버려

☞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영혼들에 의해서 자기 정신이 완전히 먹혀 버린 그런 사람들을 되마사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명도 넘는 영혼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뱀의 영혼이 들어와서 뱀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스님, 어떤 인연으로 그런 영혼들이 접신을 하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요즘에는 영계성에 휘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길에 오다 가다가도 영계성이 나한테 유전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속에서 의식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지은 악업 선업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입력이 된 것이 술 풀러나오거나 하면 바깥에서 오고 가면서 영계성이 나한테 부딪히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이런 것들이, 윤회성은 대대로 물려 가면서 돌아오지만 영계성이나 세균성 이 자체는 때에 따라서 길에 오다 가다가도 딱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심하

면 뭐 때려부수기도 하고, 밥 먹지 말라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라 그러면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가만히 보면 이 신경이 급박해지면 그런 게 일어나기 쉬워요. 뭐 생활 속에서 가장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회사가 망했다든가 도무지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일이 생겼다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거를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로 옹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부터는 해결을 못한다 하고선 거기가 딱! 맡겨 놓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모두 나오는 것을 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한테다,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에다 다 맡겨야 한단 말입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그게 영계성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모두 맡기면 이 체가 없으니까 돌이 아니게 되죠. 돌이 아니게 입력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의 주인이 자체, 정말이지 나를 추억겹 끌고 다닌 믿음직한 나부터 믿어서 나 영혼 자체가, 바로 이 의식적인 모든 영혼들이 한테 합친, 하늘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전부 주인공에다 진자로 맡겨 놔 버리세요. 그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좋은 기가 느껴지는데...

☞ 최근에 무슨 일로 저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안 좋은 기를 보내는 게 느껴져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런 파장에 영향을 받아 내 기를 뱉긴다는 거예요. 그런 파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스님?

☞ 그거는 모두 사람의 사랑이예요. 사랑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없는 내 마음은 이 허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쪽의 마음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예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뭐가 되나요?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하나

26면으로 계속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불사
- 법 명 : 송담(강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4-5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대한불교일부선교종총무원장 법하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 | | |
|--------------|-----------|
| 1. 각종 전문 재의식 | 4. 사다라니바라 |
| 2. 사물 다루는법 | 5. 오공양작법 |
| 3. 천수바라 | 6. 요잡 |

- 불교의식무용반 : 선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산청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현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 맞는과일, 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가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드나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 목소리, 체형, 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 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 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수행도우미

기본종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름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뱃뺨, 오십견과 스트레소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서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행상,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짱애원(손목, 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주문도메인 : www.법왕정사.kr